

치 사

종정예하의 청안한 지혜의 덕화를 공경하며, 효광스님의 동화사 주지 진산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생명의 기운 또한 팔공산을 초록으로 물들이며 싱그럽고 힘찬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효광스님은 종정예하를 수행의 표상으로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으며, 종지종풍의 계승과 진작을 위한 원력의 실천으로 동화사가 더없는 수행도량, 그리고 현대인의 행복이 함께하는 정신의 휴식처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팔공총림의 사부대중을 화합으로 이끌며, 종도와 종단에 기여하는 종합 수행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불자의 자긍심이 지대한 대구 경북의 시민들과 본말사 대중 모두가 소중한 마음으로 지역 불교 발전과 화합의 길에 함께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적 역할은 변화하는 시대만큼이나 빠르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과 희망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종단적 고심과 노력은 현시대의 흐름이자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국불교가 사회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수행자로서의 정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참구의 정신이 모든 종교적 활동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임 주지스님의 그동안의 헌신과 경험은 사회와 시대를 옹골게 읽어내는 혜안이자 동력이 되어줄 것이며, 향기로운 성취로써 사부대중과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화사는 정보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생태통로 연결을 통해 팔공산의 기운이 시민의 삶에서 생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승려복지시설을 준비하는 등, 의미있는 불사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조의 수승한 유산과 정신의 가치를 현대인에게 감동으로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산중의 원융화합과 소임자로서의 공심, 그리고 물러남이 없는 용맹정진의 원력을 겸비하였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이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총림의 모범이 되는 종합수행공간으로 자리 잡아갈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효광스님의 진산을 거듭 축하드리며, 전임자로서 여러 어려움에도 교구의 운영에 헌신을 다한 덕문스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진산을 시작으로 수행자의 초심과 공심이 더욱 빛나고 사회와 국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팔공총림으로 크게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법연의 공덕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행복과 평화로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3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